

[여수·순천·광양]

맛·향 줄어 들고 돌산갓 가격도 폭락세
연작 줄여야 '명성' 있다

“우수 중학생 역외유출 막아라”

여수지역 고교진학 학생에 장학금 300만원 지원

4주간 해외연수 혜택도

여수시가 중 3학생중 여수지역 고교로 진학하는 우수학생들에게 1인당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외유학연수 특권을 부여하는 등 인재를 육성해 나갔다.

또 해당학교에도 학생 1인당 15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여수시가 이처럼 우수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매년 수백명의 중학생들이 타지역 고교로 진학하고 있어 인구 감소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외로 눈 돌려 취업난 타개

순천청암대 '인턴십' 운영

재학생 7명 日 현지 취업

순천 청암대학(학장 강길태)의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이 극심한 취업난을 타개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암대학에 따르면 최근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이수학생 7명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일본기업체에 취직이 확정됐다는 것.

청암대학은 지난 2003년부터 일본인턴십 대상 학생을 선발, 일본어 특강과 컴퓨터 및 인성교육 등 일본 취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대상자들에게는 일본항공료와 학원 교육비 및 보험료 등 3개월간의 체재비를 전액 지원했다.

또 이들 학생들을 위해 오사카에 교

육과 숙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4층 규모의 현지 학습관을 세웠다.

그 결과 최근 지리정보관리과 송치환 군과 이수진 양이 (주)Gold 공업에, 같은 과 오기조·정세환 군이 (주)NOVA 시스템에, 문화관광과 이혜란·송미진 양 및 호텔외식조리과 최효선 군이 다이아몬드 소사이터에 각각 취업이 확정됐다.

정종식 부학장은 “이번 인턴십 수료자의 취업성공을 계기로 향후 호주 및 중국 내공고와의 국제 교육협력력을 위한 노력을 가시화하는 등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암대학은 오는 30일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세미나에서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관한 성공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1년 6회까지 수확 속성재배

대량출하로 품질저하 자초

여수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자리잡은 돌산갓이 1년에 여러차례 수확하는 연작으로 가격 폭락이 반복되고 고유의 맛과 향이 떨어지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재배농민들에 따르면 최근 돌산갓 인기가 높아지면서 많게는 1년에 6회까지 수확하는 연작으로 출하물량이 급증,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연작은 속성 재배가 불가피해 특소면서 감칠 맛 나는 특유의 맛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돌산 갓 영농조합 관계자는 “돌산갓은 12월에 파종해 4개월 뒤에 수확해야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2개월 단위로 수확횟수를 늘리면 속성 재배가 불가피해 본래의 맛과 향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수 십년간 여수지역 대표 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체 품종 개발은 등한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 돌산 갓 가격이 지난해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돌산갓 생산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터 신품종 개발에 착수했으나 지도사 1명이 연구를 전담하고 있어 연구인력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돌산갓김치 가공시 양념첨가 및 숙성기간 등 기준이 없어 김치제조업체에 따라 맛의 차이가 큰 또 한 돌산갓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수농업기술센터 정운섭 계장은 “돌산갓이 본래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서는 임시방편적 개선책보다 전통 돌산갓김치 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등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돌산갓은 1천87 농가에서 1만5천여의 생산량을 출하해 55억여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86개 가공업체가 연간 49억여원의 김치치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GS칼텍스, 여수공익사업 '윤곽'

만남의 광장·씨타워 등 4개 후보안 선정

GS칼텍스재단(이사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이 여수지역에서 추진할 공익사업 시안으로 만남의 광장, 시민문화체육센터 등 4개안을 선정했다.

GS칼텍스재단은 최근 여수지역 각계 대표 11명으로 구성된 재단자문위를 열

고 만남의 광장과 시민문화체육센터, 씨타워(Sea Tower),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4개의 공익사업 시안을 확정했다.

재단은 이번주에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중 2개 사업을 선정할 뒤 이달 하순께 재단 정기이사회를 열어 1개 사업을 최

종 사업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4개 공익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만남의 광장은 문화·체육 편의시설과 공연장, 생태공원을 갖춘 복합문화 교류의 장소로 만들 계획이며 시민문화체육센터는 문화교육장, 전시관, 위팅룸 등으로 구성된다.

씨 타워는 다도해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고층전망대 형태로 건립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오페라, 뮤지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대·소 공연장과 연주회장 등이 들어선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여수산 햇 홍합 인기

수도권서 알홍합 kg당 6,500원거래

최근 생산하기 시작한 여수산 햇 홍합이 수도권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재 수도권 도매시장에서는 곱홍합이 kg당 400~500원, 알홍합이 6천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이상 높은 가격이며 하루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1.5배 늘어난 70t에 이르고 있다.

한편, 여수지역에서는 가막만 및 돌산도 동안해역 300ha의 어장에서 매년 3만t내외의 홍합이 생산돼 100억원 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백운장학회, 121명에 장학금

재단법인 백운장학회는 지난 13일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2006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고등학생 26명과 대학생 91명, 연구원 1명, 유학생 1명 등 총 121명에게 2억2천8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광양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지난 1991년 설립된 백운장학회는 지금까지 1천529명에게 14억5천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편 광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으로 10억 원을 출연했으며, 기업체와 개인 등이 3억여 원의 장학금을 기탁, 백운장학회 기금은 55억여 원으로 늘어났다.

광양=김춘희기자 chkim@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Lists various locations and their corresponding numbers.

Advertisement for Caleo heating systems. Features a fireplace and text: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칼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Advertisement for RYN shoes. Features a red shoe and text: '마사이족처럼 걸어라!!', '스포트화 147,000원', '케이주얼화(신사화) 197,000원'.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han Dongshim Real Estate. Text: '대인동상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Eulji Gongin Real Estate. Text: '을지공인중개사', '광주역 부근 주유소 현 성업중'.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eongu Real Estate. Text: '정우부동산센터', '상가부지 두임동 130평 나대지'.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Bightwell Real Estate. Text: '빛고을엔드공인중개사', '비전있는 남구, 지금이 부지의 최적기입니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hinhan Real Estate. Text: '신한국부동산', '금매', '광산구 소촌동 소촌공단부지'.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National Public Real Estate. Text: '국민공인중개사', '한 011-635-7939, 010-3114-6103'.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igh Rank Consulting. Text: '하이랭크 컨설팅', '토지', '건물', '부동산 광고를 통해 매도를 원하시면 전화 주십시오'.